

그 날, 나는 똑똑히 보았다.



네가 괴롭다며 울부짖는 그 모습을,



햇별아... 정신 차려!



헛아...

햇별아 제발...



벌써 가버리면 어떻게 해..

서서히 핏기를 잃어가는 그 모습을,



아...?

숨이 떠나가는 내 빛의 모습을.



운명 하셨습니다...



내가 너 없이 어떻게, 어떻게 살아 햇별아... 아...



큘...



흐으욱...으...



그날 밤에는 비가 왔더랬다.

언제나 빛나라

글/그림 이향미

며칠 뒤



할꼬...

문득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다.



200년 전

우리 귀여운 손주~ 벌써 100살이 되었구나.



응 할모니! 잼는 얘기 해조요.

재밌는 이야기라... 뭐가 좋을까.

그래, 혜성 전설에 대해 이야기 해주마.

우웅!!

우리는 장수하고,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지?



600살 중학생이에요~

그런데 먼 별 지구에 사는 생물들은 금세 죽고, 몇몇은 다시 한 번 태어난단다.



400년.



응애!

60... 나도 늙었지, 훌훌

그것도 '지구접근천체'라고도 불리는 혜성이 가장 잘 보이는 날 말이다.



왜 혜성이냐 하면.
지구 생물이 죽는 날
혜성이 그 영혼을 들고 날아가서

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날
그 영혼을 지구에
놓아주기 때문이란다.

그러니 지구인과 친하게 지내다
지구인이 죽어버리더라도
놀라지 말고 기다려 주도록 해요?

네 할모니!

그래, 그런 이야기가
있었지.

그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몰라.

진아야!

보고 싶었어.

사

야

이

이

아

그렇지만 내가 널 기다릴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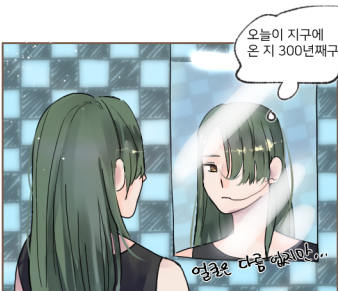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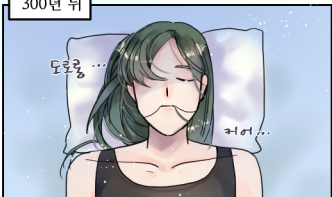


얼마가 걸릴 지 몰라도 괜찮아.



네가 반드시 돌아올 것 같다고 느꼈으니까.

300년 뒤





내 직감만 믿고 계속 지구에 붙어있긴 했지만...

슬슬 불안하네..



올해가...2080년이었지?

벌써 지구 중학교에서의 첫 겨울방학,



햇별이와 만날 수 있을거란 확신이 점점 무뎈진다.



떠 리

[제목:행성간]
...주제:행성간

[행성간 문자]
제목:해그애즈
해그애즈 브라이즈엄, 내 소중한 자식 ^^
네가... ^^지구로 유학을 간 지 ^^벌써~지
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^^
그래, ^^서론은 그만두고 ~본문에 들어갈
우리가 굳이 !!!비싼 돈을 주고 ^^;;
행성간 긴급문자를
넣은 이유!!!는 말이다 ^^
네 비자가 곧 만료되서란다. ~
지구 시간으로 5월이 되면 ^^!
만료니까...그 전에
펼쳐보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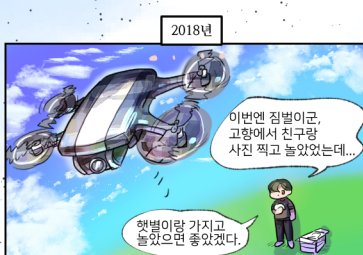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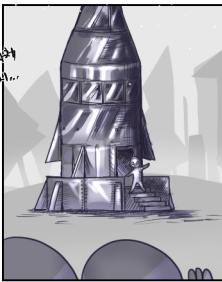
부모님.. 무슨 일이길래 행성간 긴급연락까지...

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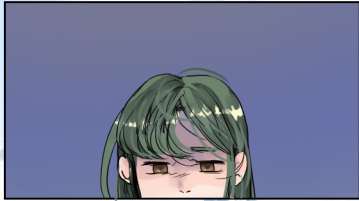
해그애즈 브라이즈엄, 내 소중한 자식.^^
 네가... ^^지구로 유학을 간지 ^^벌써~지구시간으로
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. ^^
 그래, ^^서론은 그만두고 ~본론에 들어갈게. ~^^
 우리가 굳이 !!!비싼 돈을 주고 ^^;;
 행성간 긴급문자를
 넣은 이유!!!는 말이다, ^^
 네 비자가 곧 만료되서란다. ~
 지구 시간으로 5월이 되면 ^^!
 만료니까,....그 전에
 우리 행성^^으로,
 돌아오도록 하렴~ ^^다시 볼 때 까지 잘 지내 우리 딸^^



지구 처음 왔을 때 적응하기 참 힘들었는데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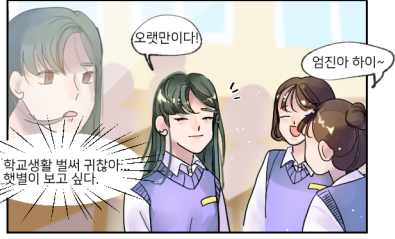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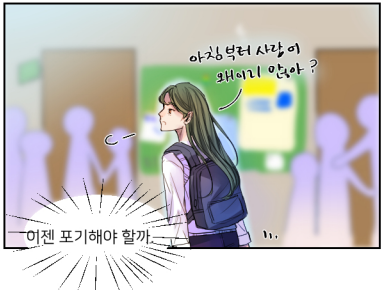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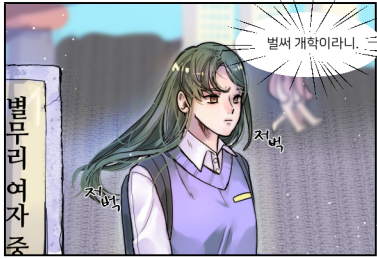


그나저나, 5월 전까지 햇별일 못 찾으면...
 그러면 어쩌지





괜찮아. 꼭 만날 수 있을거야,





뭐야.

어머 애! 못 보던 아이로구나. 차림새가 이상한 걸 보니 이방인이더냐?

날도 추운데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건 어떠냐?

...그래!

이게 맞나...

맞게 하고 있으니 걱정말거라. 갈 곳은 없어보이니, 오늘은 여기 머물거라.

내 평소 너의 차림새가 무척이나 신경쓰였다, 선물이니 암전히 받거라

아하하, 고마워!

나는 사실 어릴 적 부터 병약하여 제대로 된 벗이 없었다.

그래서 은연중 내 너를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다. 미안하마.

오히려 내가 받은게 많은데, 신경쓰고 있었다니. 난 괜찮아.

그럼 앞으로 나랑 벗 하자!

네가 이리 말해줄줄은 몰랐다. 고맙구나...!

앞으로 자주 보자꾸나.

아씨가 위독하세요...

속히 별채로 가보셔요

햇별이다.

어?

이름이 다르지만, 웃는 모습이 분명 햇별이야...

눈물난다. 보고싶었어 햇별아

이리 널 만나게 되어 다행이야.

치, 치

저기...

응?

나리아! 마치고 같이 갈래? 길도 익힐 겸 어때?



좋아! 집 가는 길 잘 몰랐는데 잘됐다!

너 집 어딘데?

나 00제과 건너편 빌라!

집 멀다! 등교할때 힘들걸~

ㅋㅋㅋ힘내

헐 망했다

우린 그 날 이후로



클거거든.

키 작다.
귀여워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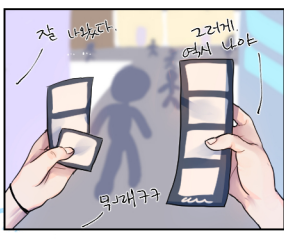


뭐 아예?

이 커피 맛있게
*나 커피 아예 별로
싫어...*

애기각만 ~

빠르게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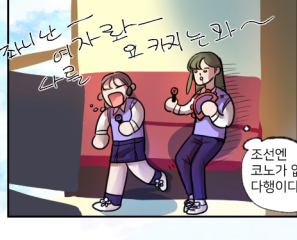


잘 나왔었다.

그러게.
역시 나아

묵래쿠쿠

빠르게 친해졌다.



조선엔
코노가 없어서
다행이다...



지금 이리 즐거워도
결국 난 돌아가야 할 텐데.

찰칵



매점 이네 ~

매다 ~

하지만
이렇게 즐거운데,
망치고 싶지 않아.



잘 지네.

ㅋㅋ
귀엽다.

그러면,



가엾을 뿐 다행이!

아! 나 4월 말에 생일인데,
같이 놀자.

생일만, 딱 생일만 같이 보내고 헤어지자.



누구 생일인데,
당연히 가야지!

ㅋㅋㅋ 좋아!
우주공원 앞에서 만나자!



엄진아~

오늘 와줘서 고맙다.

니가 불렀으니까.

말 해야 하는데.



와 별 진짜 잘 보인다.

그러게.

뭔데?

나 사실 오늘 할 말 있어.

잘 하고 있는거야.



비밀인데, 사실 나 외계인이라서 곧 집으로 가야해.

뭐?

잘 하고 있는거라고...



장난 치지 마~ 외계인이, 외계인이 어딴는데.

네 옆에 있잖아.

거짓말이잖아.

나도 그게 거짓말이면 좋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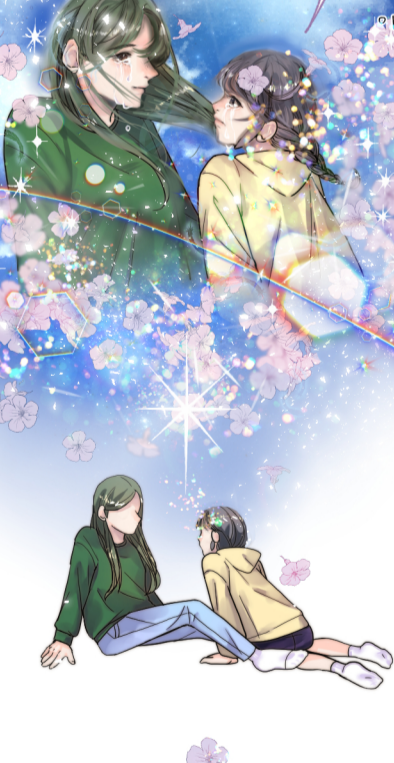


무슨 소리냐고, 이렇게 헤어지는 게 어딴는데...

그러게...

그동안 고마웠어, 너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...

끝까지 모르는 이야기 뿐이야.



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아.

하지만 미래에 다시 찾아올게.

내가 잊지 않도록 말해줘.

넌 어느 별에서 왔니?